

# 2017년 우리 아이들 급식비는 이렇습니다

## 초등학교(식품비 및 운영비)

■ 인천시교육청  
■ 인천시  
■ 군구

합계 843억 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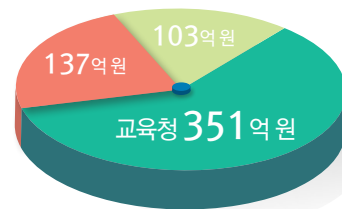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 지원액

**672,000원**

## 중학교(식품비 및 운영비)

■ 인천시교육청  
■ 인천시  
■ 군구

합계 591억 원(100%)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 지원액

**733,200원**

※ 2017학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 고등학교 급식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 겨울

2016 Vol.8  
www.ice.go.kr

자치선언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내 운명의 선장



교육이슈

학생 민주주의 - 학생 자치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우리부터 다문화교육

진로진학 정보

정시 모집 지원 전략





학생자치로  
민주주의를 할자가 아닌  
활동으로 배웁니다.



학생자치로  
자율과 협력을 배웁니다.



12



20



24

# Contents 겨울 \_ 2016 Vol. 8

04-11	교육이슈	학생 민주주의 - 학생 자치
12-15	놀이밥	죽백에서 잘 놀고 죽백에서 잘 크다!
16-17	마음자람	두려워 말고 다가가세요
18-19	행복배움	만날 때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지적 대화
20-23	오늘 당신이 주인공	우리부터 다문화교육
24-25	우리 동네 역사이야기	무엇이 그토록 불평등했을까?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
26-27	진로진학 정보	정시 모집 지원 전략
28-40	학부모기자단	학부모기자단을 만나다
42-47	학생기자단	학생기자단을 만나다
48-49	사진공모전	인천교육의 행복한 순간을 소개합니다
50-51	교육노트	자유학기제, 교사도 학생도 바뀌는 수업혁신



발행일 • 2016년 12월 9일 |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박자흥 | 기획 및 편집 • 오태환, 김진철, 어석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화 • 032)420-8125 | 편집디자인 • 웨스트코(주) 032) 423-1988 | 인쇄 • 신촌인쇄사 032)885-8188 | 발간등록번호 • 인천교육 2016-0109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민주주의  
학생자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석남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회장  
김지민



유일무이(唯一無二) 동아리,  
인천고등학교 역사방랑자

인천고등학교 역사동아리 부장  
이경구



서운고의 주인은 우리 모두!  
학생회는 서운고의 일꾼!

서운고등학교 학생회 홍보부장  
추민재







##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 석남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회장 **김지민**

올해 처음 석남중학교에 학생자치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이니 잘하자는 마음보다는 앞으로 학생자치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자는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자치회는 회장단, 서기, 총무부, 자치부, 행사부, 특색사업부, 홍보미디어부 등의 팀을 꾸리고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총무부가 진행한 대의원회는 각 반의 반장, 부반장이 모여 학급회의 내용을 가지고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했고 리더십 캠프는 반장, 부반장과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월드카페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학생자치회도 임원수련회 형식으로 학교에서 이틀간 축제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9월에 열린 회장단 공약 검증 공청회는 교사와 학생이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회장단이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학생들과 교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총무부의 이런 활동은 임원 사이의 친목에도 큰 도움이 됐지만 회장단 공약에 대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사부와 특색사업부는 일이 많은 부서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세월호 2주기 추모 행사였습니다. 적은 부원으로 시작해 많이 힘들었지만 같이 피켓을 들고 아침 캠페인을 하고, 노란 리본 등을 접어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레몬트리 카페 운영 기부금을 모아 세월호 유가족들에

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학생자들의 초상화를 벽에 붙여서 기억의 벽을 만들고, 뒷마당에 바람개비를 꽂아 기억의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플래시몹을 운동장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호 추모 행사가 퍼져나가자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란우산 프로젝트를 통해 신주옥 작가와 함께 대형 그림을 그리고 노란우산을 들고 배모양을 만들어 사진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힘든 일도 많았지만 출발이 좋으니 금세 잊혀졌습니다. 세월호 행사가 마무리되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유가족들께 그간의 활동 모습을 전할 때는 뭉클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엔 특색사업부 주관으로 「빙수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친구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빙수를 판매한 기부금을 모아 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뜨거웠던 '석남슈퍼스타'는 끼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점심 먹고 노을~자'는 무대를 필요로 하는 동아리들이 더 많은 무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행이 되었는데 평소 각자 놀던 친구들도 이 시간만 되면 강당으로 삼삼오오 모인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고 호응도 많이 해주어서 고맙고 재미있던 기업을 납니다. 최근에 했던 '학생의 날' 행사에서는 각 반에서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옛날 교복을 빌려와 친구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고 인화까지 해주며 추억 만들기엔 앞장섰습니다. 다른 행사보다는 간단했지만 친구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자치부는 학생회 임원 위크숍을 임원 및 부원과 담당교사가 참여하여 당일 행사로 진행하고 축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크숍을 통해 조금씩 축제의 열개가 잡히는 걸 보니 학생들이 가장 기대가 큰 행사인 축제를 알차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하는 일 없이 봉사시간을 받는다고 불만이 많았던 생활협약 도우미의 문제도 해결해냈습니다. 이들이 교내 문제인 급식실 환경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생활협약 도우미도 정당하게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급식 아주머니들의 힘든 점을 알게 되니 자연적으로 급식실을 전보다 깨끗하게 사용하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학교는 현재 학생과 교사가 토의해 규칙인 생활협약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대의원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대안으로 생활협약을 잘 지켜지게 될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홍보미디어부에선 석남뉴스를 제작해 급식실 아주머니들을 인터뷰하고 그 고충을 담아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뉴스를 본 후 학생들은 급식실을 사용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마지막 학생자치회가 모두 함께 한 일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자치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학급회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사업을 계획합니다. 매주 만나서 그런지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항상 잘 마무리 돼서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준비를 세 분과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서로 일이 겹치지 않고 부딪칠 일도 생기지 않아 좋았습니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에도 출연해 우리 학교를 소개했습니다.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 긴장이 되었지만 학교 자랑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끝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생깁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모금하였지만 많은 선생님과 학우들이 선뜻 참여해준 탓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에게 인천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없다고 하니 다들 몰랐던 사실이라며 놀라던 모습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부평시민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되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학교 학생자치회가 언급된 것도 좋았지만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실현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글을 쓰며 지난 학생회 활동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힘든 기억보단 즐겁고 행복한 장면이 더 많이 떠올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고 뿌듯합니다. 우리 석남중학교

학생자치회가 천년만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길 바랍니다.





# 유일무이(唯一無二) 동아리, 인천고등학교 역사방랑자

인천고등학교 역사동아리 부장 이경구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고등학교 역사방랑자 동아리 부장 이경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인고에서 역사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로, 역사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다른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박물관 등 답사 장소를 선정하여 답사 자료집을 만들고 직접 다녀온 후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에는 역사 홍보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캠페인 활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밝게 웃으며 협동해 나가는 동아리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함께 웃게 되었고 잘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1학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신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 드리자는 의미로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시간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만행도 알게 되었지만, 베트남전 당시 파병된 우리 군인들도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동아리는 학우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월 26일~27일 이틀간 등교시간을 활용해 정문과 후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470개 정도의 희움 팔찌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수요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할머니들의 인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우리의 캠페인 활동이 결코 작은 외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묵살되어 가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2학기에도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학기가 되어 우리 동아리는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함께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시준 2'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에 'SHOW ME THE HUMAN RIGHTS'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아리 부원을 홍보팀과 공연팀으로 나누어 홍보팀은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을 담당하고, 공연팀은 공연 기획과 공연 활동 등을 맡아 준비했습니다. 저와 동아리 부원들은 '어떻게 해야 친구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진행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수행평가와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동영상을 만들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녹음, 영상 편집을 해본 경험을 가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불만 갖지 않고 머리 맞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연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공연에 관심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영상을 올리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준비과정에서의 힘듦과 피곤함이 한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과 영상편집 같은 새로운 경험은 저와 동아리 부원들에게 추억이 되었습니다.(이 글을 읽고 궁금한 분이 계시면 페이스북에 '인천고등학교 학생회 페이지'나 '이경구'를 검색해 주세요.)

9월 7일 수요일 점심시간에 혜성관에서 'SHOW ME THE HUMAN RIGHTS' 공연을 했습니다. 방송부의 도움으로 마이크와 앰프를 준비하였고, 관현악부 친구들의 '태극기 휘날리며' 연주, 노래, 우리 동아리의 춤과 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인고 친구들의 참여와 선생님들의 격려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공연장을 정리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다 끝났구나'라는 안도감이 몰려 왔습니다.

역사는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며 그분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보기 삼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되거나 부당한 현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가 직접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 둘씩 모여 큰 힘이 되어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서운고의 주인은 우리 모두! 학생회는 서운고의 일꾼!

서운고등학교 학생회 홍보부장 **추민재**



학생들은 곰돌이 푸와 포옹을 하고 아이스티, 초코파이 등 소소한 선물을 받으며 기분 좋은 한 주를 시작한다. 또한, 일년에 한 번 찾아오는 스승의 날에는 정성 가득한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선생님과 여러 감사한 분들께 전달한다. 때때로 학생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엔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에서 문제를 의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다. 반 대표와 학생회 임원들은 대의원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각 반에 결과를 공지함으로써 모든

매주 월요일 아침, 신나는 주말이 지나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을 위해 교문에서 '곰돌이 푸'가 신나는 음악으로 학생들을 반겨준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맞아주시기도 한다.



학생이 학교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고3 선배들의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떡과 과자, 음료수 등을 포장해 선물하며 작지만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꿈꾸는 서운 마당'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끼 많은 학생이 학교 야외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면서 꿈과 장기, 열정을 뽐낼 기회를 제공한다.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위한 실내화 대여 사업을 통해 학교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공휴일 알리기 캠페인', '맞춤법 바로 알기 캠페인', 평소 관계가 서먹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와 함께 전달하는 '사과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즐겁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체육대회, 축제와 같은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추진할 때에는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를 조율하는 징검다리 역할 또한 우리의 일이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설득하기란 더욱 쉽지 않았다.



학생들도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결에 따라 의견을 결정하면 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결정을 하기란 불가능했고,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쓴소리는 우리의 몫이었다.

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다. 우리가 준비한 행사를 열심히, 즐겁게 참여해주는 학생들과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는 몇몇 학생들의 격려의 말을 들을 때면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피로가 모두 사라지곤 했다. 또 선생님들이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는 학생회라는 이름에는 많은 책임이 따랐고, 그 책임만큼 매우 어려웠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경험하지 못할 값진 경험임은 분명하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서운고등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꼭~





## 죽백에서 잘 놀고 죽백에서 잘 크다!

죽백초 학부모 놀이동아리 ‘애들아 놀자’ 동아리장 정 기 수

유니세프가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  
‘유니세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놀 권리 지킴이 으뜸상’을 수상한  
평택 죽백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다. 사람들은 혁신학교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다.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다. 사람들은 혁신학교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모습이다. 2012년 3학년과 7살이던 두 아이를 죽백초에 처음 보냈을 때 나도 이런 기대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달랐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놀이는 플라스틱 캐릭터 딱지, 만화에서 나오는 펍이, 포켓몬 카드였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주셔서 이런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갈 수 있었고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엔 이것이 있어야만 함께 놀 수 있었다. 집에 가서는 더 사달라고 하고, 더 많은 것, 새로운 것, 비싼 것이 대우받으며 장난감으로 인정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걸 아 니다 싶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축구, 야구, 그네, 모래 놀이 등 항상 뻘한 놀이들뿐이었다. 1학년 학부모들이 반 행사로 단오 행사를 하거나 전래놀이 몇 가지를 아이들과 해보기도 했지만 학교의 놀이문화를 바꾸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놀이의 질에 대한 문제 인식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선생님들은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기로 아이들과 약속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장난감을 못 가져오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기에 학교 안 놀이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13년 4월 학교에서 교사 대상 연수로 놀이연수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반가운 마음에 우리도 함께 연수를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선생님과 함께 연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날 만난 「놀이하는 사람들」 이상호 선생님의 연수는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고민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 어린 때 즐겁게 뛰어놀던 경험이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된다. ”

어릴 적 놀았던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몇몇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죽백 아이들 누구나, 안전한 학교 안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전래놀이’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부모 놀이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마을에서 놀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놀이자격증 연수를 들었다. 그 다음 놀이 동아리 제안서를 학부모회에 제출하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학부모 놀이동아리 〈애들아 놀자〉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3년째 학교를 중심으로 놀이문화를 가꾸고 있다.

놀이동아리의 첫 사업은 고무 딱지 퇴출작전! 처음엔 일주일에 두 번, 방과 후 놀이시간을 정하고 고무딱지놀이 하는 아이 옆에서 종이 딱지를 접고 놀았다. 선생님들도 학교에 고무 딱지를 가져오지 않도록 아이들과 규칙을 정했다.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

습니다, 고무줄, 비석 치기, 한발 두발 등 전래놀이와 아카시아나무 줄기 파파, 강아지풀 수염 등 계절에 맞는 자연놀이 등 점점 놀이의 영역과 가짓수가 많아졌다.

방과 후 놀이활동으로 시작한 놀이동아리 활동 범위도 점점 넓어졌다. ‘단오 행사 놀이학교’, ‘신입생 놀이학교’, ‘돌봄 교실 놀이수업’ 등 학교 안 활동을 넘어 이웃 학교 돌봄 교실에서도 방학 중 수업을 의뢰하는 뜻밖의 일도 생겼다.

이 과정에서 놀이 이모(아이들은 놀이동아리 회원을 놀이 이모라고 부른다)는 놀이 안내자에서 안전한 방과 후를 지켜주는 학교 지킴이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갈등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보였다. 놀이 동아리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내 아이’를 이해하는 경험도 하였다.

동아리의 엄마 역할을 하는 놀이 이모들







고무줄놀이를 하는 아이들



안경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



자연 소꿉놀이



학교 최고 인기 놀이인 변형8자놀이

잘 노는 아이들이 잘 큰다는 믿음으로

놀이 이모들은 오늘도

“애들아 놀자!”

현수막을 건다.



엄마들이 직접 만든 “애들아 놀자” 현수막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판을 벌이고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올해도 3명의 동아리 회원이 놀이 자격과정을 통과했고 ‘숲 밧줄’, ‘생태안나자’ 등 다양한 놀잇거리를 찾아다니는 엄마들이 생겨났다.

요즘 아이들은 동아리 출동을 알리는 「애들아 놀자!」 현수막이 걸리면 “애들아 놀자다!”하며 달려온다, 정자 주변에 준비된 놀잇감을 이용해 알아서 놀기도 하고 이모에게 여럿이 함께할 수 있는 8자 놀이나 ㄹ자놀이를 그려달라고 한다. 팽이를 들고 운동장에 놀이판을 그리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한 판에서 어우러져 뛰어논다. 이제 아이들은 더는 고무 딱지나 돈 주고 산 놀잇감으로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사이 코흘리개 1학년 시절 놀이하다가 지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고 울기까지 하며 억울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던 녀석이 이제 고학년 형님이 되어 놀이판의 중재자이자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졸업을 앞둔 6학년 한 녀석은 중학생이 되어도 동생들과 놀아주러 오고 싶다고 한다.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나 쉬는 시간에 참 잘도 논다. 어떤 녀석들은 해가 질 때까지 뛰어논다. 잘 노는 아이들이 잘 큰다는 믿음으로 놀이 이모들은 오늘도 “애들아 놀자!” 현수막을 건다.





## 두려워 말고 다가가세요

인천예일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신혜숙**

교사가 상처받는 학생을 대할 땐  
교사 자신이 학생에게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가슴에 품은 것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가면서 보여줘야 한다고.  
그것이 배움으로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희망(가명)이는 키도 크고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아이다.  
다소 말도 거칠게 하고, 선생님께 욕설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 자신의 감정에 아주 솔직하게 반응하는 아이. 상담실에서 이  
이야기할 때면 서로 대화가 잘 통했다. 나는 아이의 원활한 학교생활  
을 위해 일부러 친근하게 불러주기도 했다. 생일에는 간식으로 롤  
케이크를 준비해서 초도 켜고 생일축하노래도 다른 친구들과 불  
려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잘 지내던 우리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상담실에서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중 그 아이가 허락도 없  
이 상담실에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 그래서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한다고 나는 희망이에게 한소리 했고, 그에 희망이는 다른  
선생님이 허락해서 썼다 했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더니 희  
망이는 물건을 복도에 던지고 다시 가져 오라는 나의 말을 무시  
한 채 가버리고 말았다. 희망이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내가 이  
상황을 다른 선생님께 말하자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별점을 부  
과하라는 답이 돌아왔고, 내가 별점을 주는 것에 대해 머뭇거리  
자 그 선생님은 나 대신 희망이에게 별점을 주었다.  
그 후 희망이와 나는 서로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모른 척 지  
나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다. 그리고 개학  
후 얼마 안 지나서 희망이는 또 담임선생님께 대들어서 교무실  
에서 큰소리로 혼나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께서 아이의 감정을  
자제시킨다며 희망이를 교무실 내 자리 옆에 앉혀 놓으셨다. 서  
로 어색한 기류가 오가던 중 내가 먼저 무슨 일이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문제가 일어났냐며 물음으로써 오랜만에 둘의 대화  
가 이루어졌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희망이가 죄  
송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  
가 죄송한데?”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희망이는 여름방학 전 있  
었던 나와와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때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을 오해하고 화를 내니 자신도 화  
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며, 선생님이 불렸음에도 못 들은 척  
그냥 간 것이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아이의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눈물이 났고, 사실 별것 아닌데 아  
이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서도 희망이처럼 용기 내 사과하  
지 못했다. 찝찝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던 중 마침 상담실에서  
열린 ‘APPLE DAY’ 행사를 통해 희망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  
던 사과와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행스럽게도 내 진심이 희망이에게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희  
망이와 나는 서로 만나면 안아주고, 희망이가 나를 보면 뒤에  
와서 와락 안아주는 사이가 되었다. 희망이와의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희망이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정  
리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 말  
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니 차근차근 가르쳐주자는 것이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하면 선생님들한테 대들거나 욕설을 하  
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통 그런 아이들 내면은 많은  
상처로 얼룩져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자신 가슴 속에 품어  
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선생님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 하  
지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자극 받게 된  
다.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결  
국 선생님도 아이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  
를 받는 선생님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이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지 않나 싶다.  
상처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  
를 해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나도 잘 몰랐다. 한참을 고  
민하던 중 나에게 답을 건네준 것이 바로 <학교의 눈물>이라는  
책이었다.  
책 속에 박영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교사가 상처받  
는 학생을 대할 땐 교사 자신이 학생에게 상처 받는 것을 두려  
워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가슴에 품은 것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가면서 보여줘야 한다고. 그것이 배  
움으로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상담수가 여러 이유로

마음 속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할 지 모르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른, 선생님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아이들은 선생님께 상처를 보여줄까?

아마 그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어른이

아마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나 좀 보살펴 달라고

보내는 메시지 같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은 그들이 품은 상처로부터 상처받  
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 만날 때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지적 대화

일반사회교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시지 대표  
인천초은고등학교 교사 **이강숙**



올 한해 동료 교사들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배우고 연구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교직 경력 17년을 넘기면서야 같은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꾸준히 배우고 연구하며 서로의 수업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우리 수업 공동체가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잘 운영하기 힘든데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半信半疑)하였다.

우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름은 ‘소시지’이다. ‘사회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지적 대화’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모임 이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때문에 먼저 웃게 된다. 그런데 1년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은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의 열정과 정서적 지지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웃는다.

일반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교 안에서 같은 교과나 같은 학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모임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 교과 교사 9명(문일여교 윤종조, 대인고 김관성, 인하사대부고 김계환, 학익고 황선영, 학익여고 배혜선, 세원고 김청아, 영종물류고 김미나, 인천해원고 문동현, 인천초은고 이강숙)으로 구성되었다는 것부터 특별하다. 각각 남구, 서구, 부평구, 중구에 있는 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모이는 장소 및 시간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런데도 다급하게 문을 열고 하나둘씩 모여 김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는 수업 방법을 배우고, 학생 입장이 되어 실습도 해보고 수업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소통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함께 배우는 것이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비주얼 씹기’, ‘질문이 있는 수업’,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 강의는 실습으로 이어지고 발표와 토의를 거쳐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여건을 타하며 변화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고 행복해지는 수업에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두 번째는 현재 가르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일반사회 교과이면서도 각자 학교에서는 고1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목을 지도한다. 그래서 배운 수업방법을 현재 가르치는 과목, 학교의 특성,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학교마다 학생의 성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소속 학교 학생에게 맞도록 재구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업 개선을 하려고 했다.

그 결과 게임 활동, 비주얼 씹기 등을 수업이나 수행평가 과정에 투입하여 활동 중심으로 했을 때,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나 기억의 양, 지속 시간이 교사가 주도한 수업보다 높았으며 학생의



“ 입시 위주의 교육 여건을 타하며 변화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고 행복해지는 수업에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

만족도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아홉 명의 교사가 자신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해 본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세 번째는 일반사회 교과연구회 소속 선생님들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활동한 것이 대단한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연구회 하계연수에서 소개했다. 이후 선생님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고, 자료를 받고 싶다는 전화와 문의도 받았다. ‘소시지’를 통해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했던 학생 중심의 수업 모형을 같은 교과 선생님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시간적 측면이나 물리적 거리 제약에도 학습 공동체 운영과정에 한 명도 빠진 적이 없었다. 바쁜 학교 일정과 가족과 함께해야 할 시간을 쪼개어 방과후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모여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대신한 선생님들의 열의와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난다.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업 모형을 서로 나누고, 함께 배운 것을 학교로 돌아가 적용해보

면서 수업과 수행평가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졌다.

같은 교과 교사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 속에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았기 때문일까? 서로의 수업을 돌아볼 때도 전문가보다 더 작은 신호에 공감할 수 있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단원에서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을지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학교 이야기와 수업 이야기, 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 주제 선정이나 방향을 탐색할 때도 그랬다. 그래서 수업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학교 생활의 힘든 점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 해결 방안을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의 말 한마디로도 회복 되었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교과 연구와 수업 개선에 도전해 보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 우리부터 다문화교육

글: 교육홍보팀 파견교사 **어석원**

사진: 교육홍보팀 주무관 **이예슬**



### 선생님도 같은 걱정

“한국어 발음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인천한누리학교 김사랑 선생님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다문화로 찍혀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이다. “중국 아이라 공부를 못 한다는 선생님 말씀을 아이가 우연히 들었어요.” 같은 학교 장향화 선생님이 한국에서 두 자녀를 키운 경험은 아이들의 학생과 학부모들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장향화, 김사랑 선생님은 다문화가정이다. 장향화 선생님은 조선족 출신으로 한족 학교를 다녔다. 두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벌써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다. 김사랑 선생님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에서 대학교까지 다녔다. 우연히 시작한 한국생활이 어느덧 8년째다. 두분은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한다.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공감한다. 같은 과정을 겪었고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 단체 대화방에 늦게 들어갔어요. 아이 아빠가 저보다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걱정은 아빠에게도 남 일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지지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다문화 아이들은 대부분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해요. 취업에 분명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 김사랑 선생님



김사랑 선생님도 일부러 봉사활동 등 학교 일에 자주 참여한 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기대하는 여느 학부모와 같은 마음이다.

장향화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웠다. 엄마도 한국어에 익숙지 않아서 학교의 문턱은 더 높게만 보였다. 자녀의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는 것부터 선생님과의 상담까지 답답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을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장 선생님의 경험이 다문화가정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지지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다문화 아이들은 대부분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해요. 취업에 분명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다문화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약점은 기회가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다. 김 선생님이 주변에서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는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따위가 많았다. “전세도 월세도 아니고 매매한 집이라고 하면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 선생님이 만난 희망

인천한누리학교에선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온 한국어가 서툰 학생이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는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도 있다. 11월 10일 기준 200여 명의 초중고생이 함께 공부한다. 한누리학교의 장점에 관해 물으니 장 선생님은 “이중언어교사는 학생에게 엄마 같은 교사여서 좋다”라고 말한다. 아직 마음이 여린 아이들에게 모국어로 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위안이다. 김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딜(가명)을 기억한다. 러시아에 태어나 유치원도 못 다닌 채 학교에 온 아딜은 말이 없었다.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이 모두 같이 배우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인형을 구해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가 러시아어로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인형 친구만 기다렸다. 인형 친구에게 지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땐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학교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가정도 안정되고 아딜도 벌써 초등학교 4학년으로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했다. 부모가 한국문화에 익숙치 않아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여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엔 위탁교육기간 이후에도 학교에 더

다니고 싶은 학생도 있다. 그래서 장 선생님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던 6학년 정위균(가명)이 더 기특하다. 정위균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소극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인천한누리학교에서 한국어에 익숙해진 후 원적교로 돌아가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 선생님이 정위균을 만나러 학교로 간 날에는 장 선생님과 중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 중국어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친구들이 정위균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졌고 학교생활도 크게 바뀌었다.



## 다문화교육은 우리부터

흔한 다문화교육의 모습은 다문화가정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체험이다. 다문화중점학교에 모여 김장을 하거나 한복을 입어본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민속촌이나 궁궐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김 선생님은 이런 다문화교육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는 다른 친구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150개 넘는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모국과 비교되어 더 이해하기 힘들다. 장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이다.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이 모두 같이 배우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도 다문화교육이지만 다른 문화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또한 다문화교육이다. 두 분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학부모 연수와 교사 연수 등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몇몇 다문화학생만이 아닌 다수인 우리다.





# 무엇이 그토록 불평등했을까?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

계산여자중학교 교사 **이 제 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연무당 옛터

지난 호에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과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약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중 하나는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실마리를 과거 사례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표현은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시간에 수없이 들었고, 시험문제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웠으면 다시는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린 그러지 못했을까요? 해방된 이후는 미국과 소련이 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으로 맺어졌고, 1965년 한일 협정에서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을 다루지 않은 채 경제 원조에 급급해 성급하게 맺고 말았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와 맺은 FTA 또한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국의

기반 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외교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맺은 여러 조약과 협약에서 ‘우리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선의를 베풀어 왔습니다. 이것은 강화도 조약부터 이어내려 온 우리의 외교 잘못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할까요? 아마도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내용만 암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불평등하다는 것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강화도 조약에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입니다. 조약이든 헌법이든 제1조에는 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 ‘일본과 평등한 권리’라는 표현만 보면 강화도 조약이 평등한 조약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선 정부가 이 내용을 빼려고 했고, 일본은 반대로 꼭 넣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일본은 조선이 자주국이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가 된 일본은 아직 중국, 당시 청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손아귀에 넣고 대륙침략을 노리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배제하고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청과 조선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강화도 조약은 겉으로는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부산과 2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 상인이 조선에 마음껏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제일 가까운 부산을 통해 경제적 침략을, 동해안의 원산항은 러시아를 견제한 군사적 목적으로, 그리고 한양과 가까운 서해안의 인천은 개항하여 외교와 정치적 침략을 통해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7조**는 해안 측량을 빌미로 조선의 해안을 일본이 마음껏 정탐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입니다. 우리 영해에 대한 주권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지요.

**제9조**는 경제적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항으로 ‘양국 백성은 국가의 관여 없이 마음대로 무역한다.’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무역하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과 일본은 서로 자유 무역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했을까요?

조선은 오랜 기간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지 않고 아직 자급자족의 수공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일본은 이미 에도 시대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지속해서 수용해 왔으며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레슬링이나 유도와 같은 운동경기에서는 헤비급과 무제한급 선수들이 초경량 라이트급 선수들과 맞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 조선과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이 ‘국가의 보호’ 없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한편 공정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일 뿐입니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싸울 수 없듯이 관세와 같은 국가의 보호 장치 없는 조선과 일본의 대등한 경쟁은 그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본은 후속 조치인 통상장정을 통해 무관세 조약을 체결합니다.)

**제10조**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정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조치로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상식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치외법권입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본인의 범죄를 우리가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원래 치외법권은 외교관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일본은 이 특권을 조선에 와 있는 모든 일본인에게 준 것이고, 이것은 이후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미군과 그 군무원 가족들까지 치외법권을 주는 ‘SOFA’의 불평등 조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 미순이와 이태원 살인사건의 홍익대생 조중필처럼 명백한 살인범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법적 처벌을 못 하는 우리의 현실과도 이어집니다.

우린 왜 역사적 잘못을 되풀이할까? 우린 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냉혹한 외교 현실 속에서 ‘남에게 퍼주기만 하는’ 선행 아닌 선행을 되풀이하고 있을까? 우린 왜 강대국 앞에서는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서툴고 관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의 끝은 언제나 우리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도조약 회담 모습

오늘 신문기사에 한일 군사협정에 정부가 가서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아직도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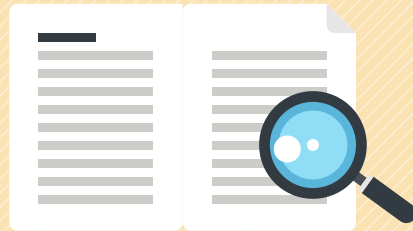
받아들여지지 않은 작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협정과 오늘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린 지난 140여 년 전 강화도 조약의 교훈을 잊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진로진학팀 장학사 이 덕 한



## 정시 모집 반영 요소 및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성적이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성적과 학생부성적을 반영하며 일부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고사 등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합니다.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에서는 모집군(가군, 나군, 다군)별로 한 개의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정시 모집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지원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 정시 모집 일정(4년제 대학)

- 원서 접수기간 : 2016. 12. 31.(토) ~ 1. 4.(수) (3일 이상)
- 전형 기간
  - 1) 가군 : 2017. 1. 5.(목) ~ 1. 14.(토) (10일)
  - 2) 나군 : 2017. 1. 15.(일) ~ 1. 21.(토) (7일)
  - 3) 다군 : 2017. 1. 22.(일) ~ 2. 1.(수) (11일)
- 합격자발표 : 2017. 2. 2.(목)까지, 등록:2017. 2. 3.(금) ~ 2. 6.(월) (4일)
-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 2017. 2. 16.(목) 21시 이전, 등록:2017. 2. 17.(금)까지



## 대학과 학과 선택

정시 모집 지원에 앞서 먼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대학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 선택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망 학과보다는 미래사회를 예측하여 전망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모님과 선생님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정시 모집 배치자료 확인

정시 모집 배치자료는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에 합격가능성을 어느 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커다란 종이양식, (엑셀)파일양식, 대학별 환산점을 산출한 프로그램, 책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데 배치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합격 가능 기준을 예측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정시 모집의 배치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면 합격가능성이 높은 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 모집 배치자료에는 영역별 가중치나 특정영역 가산점 등의 세부적인 반영비율이 계산되지 않고 모든 영역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점수로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격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자료를 해석할 때는 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차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시 모집 지원 상담

정시 모집 지원 상담의 최우선은 담임선생님과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과 상담입니다. 여건상 학교에서의 상담이 쉽지 않거나, 학교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진로진학상담센터 마중물』을 통해서 면대면 1:1 정시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월~토 09:00~17:00 시교육청 별관 1층 『진학진로상담센터마중물』에서 인천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요일별로 3명이 상주하여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은 인천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전화 신청(032-420-8475)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 시 1시간 내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1600-1615)를 활용하여 대학별 학과별 정시 지원 가능 성적에 대해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전화로 전국 진학지도 전문교사에게 정시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시 모집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univ.kcue.or.kr)나 EBSi(ebsi.co.kr) 진학상담실에서 지원 가능 대학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 모집요강 확인

정시 모집 지원 전 최종적으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정시 모집요강은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시 모집전형과 관련된 정보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전형일정,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대학수학능력 시험 반영방법, 합격자결정(동점자처리기준), 추가합격자 발표, 서류제출안내
-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 수험생 유의사항, 인터넷원서 접수안내, 전형료, 등록금납부 및 환불(등록포기)안내, 장학(금)안내, 기숙사안내, 학사안내, 교직이수안내(일부대학), 교통안내 등



##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이란 정시 모집 이후에 발생하는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시 모집의 미등록충원 기간이 지나서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충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실시합니다. 추가 모집은 보통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적어지는 2월 말에 실시되며 수능성적만으로 또는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 이미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강추위에 지지 않는 열정이 가득한 교육현장.  
이번호에도 학부모기자단, 학생기자단이  
열심히 발로 뛰며 즐거운 이야기를 가져다주었다.  
우리를 기다리는 인천수목원 반디 논에서 진행된  
자연교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급식 문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꿈틀리 인생학교, 조선일보 진로체험 등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 “개항장에서 만난 우리 근대사

학부모기자 고은영

●차이나타운에서 무얼 했냐는 말에 아이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짜장면 먹고 왔어요.” 그래. 짜장면이 맛있긴 하지.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닐 텐데.

아쉬운 마음에 직접 나서보기로 했다. 직접 마실을 가보는 거다.

인천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일 것이다. 이곳은 인천의 유명한 관광명소이자 우리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이다. 학교 밖으로 외출하는 설렘과 함께 짜장면 먹을 일엔 신나 있을 이곳 체험은 실제로는 차이나타운 방문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만나보기 위한 것이다. 흔히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이곳 일대는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로서 개항기 근대문물의 유입지이자 근대 건축물이 산재한 건축문화유산의 중심지이다.

1883년에 개항되어 인천 최초의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일본, 청국, 각종 조계지(조약에 의해 외국인에

게 국내 영토의 일부에 거주와 영업을 허가한 땅)와 각 나라의 역사관이 즐비하다.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이곳은 개항과 더불어 국제도시로 급속히 변모했다. 미국적인 도시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의 관문이자 제일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근래에는 독특한 도시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점차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차이나타운은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중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곳이다. 붉은 간판과 홍등이 중국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의 마실은 인천역에서 시작된다. 중국식 전통문인 패루를 통과하면 차이나타운의 여러 모습이 펼쳐진다. 추천코스는 차이나타운을 돌아보며 초한지 벽화 거리와 삼국지 벽화 거리를 거쳐 공화춘(짜장면박물관)을 둘러본 뒤 한중문화관을 방문하고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을 지난 후 역사문화의 거리에 도착, 일본풍거리를 걸어보며 인천 개항장 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개항 박물관, 한국 근대 박물관, 제물포 구락부 등을 둘러보는 것이다. 이곳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은 개항 후 갯벌을 매립한 곳

에 지은 물류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만국공원 즉 자유공원을 산책하고 싶다면 차이나타운 뒤편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인천 최초의 근대 상설시장인 신평국제시장은 100년이 넘는 인천대표 시장으로 쫄면과 신평 문화의 거리와 연계되어 있다.

좀 더 효율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코디네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1시간 30분 정도 동행하며 그 일대를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0명 이상의 인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역사는 재밌지만 근대사는 지루했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한국 근대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각종 영화와 매체에서 근대사를 다루고 우리의 아픈 역사와 문화를 기억한다. 엄마가 책으로만 배웠던 지루했던 근대사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즐겁게 제대로 배웠으면 한다.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먹방이 아닌 개항장 문화지구로의 입국이다.



# “ 인천수목원 반디 논과 봄. 여름. 가을을 함께 했어요

학부모기자 전수경

인천송덕여자중학교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로 이루어진 <빛과 소금>이란 봉사동아리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는 올해 ‘반디 논 생물 살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선 ‘반디 논 생물 살이 체험’이 궁금하여 인천수목원 정수경 녹지연구사를 만나보았습니다.



## Q: 반디 논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요?

정수경 녹지연구사 : 「반디 논」은 인천의 대표적인 복원 습지인 인천수목원 습지원에 있는 2,500평 규모의 논입니다. 2012년 습지원이 조성되면서 생물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논을 만들었는데, 습지 테마종으로 반딧불이가 선정되어 명칭을 반디 논이라 지었습니다. 이곳에 5년 전부터 애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하고 작년부터는 반딧불이가 나오는 6월 한 달간 개방합니다. 또한, 매년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요, 벌씨파종, 모내기, 가을걷이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에게 베풀어 체험으로 운영합니다. 이 체험활동은 인천대공원사업소 주최, 장수천 네트워크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천청소년수련관, 공세알도서관, 송덕여중, 서창중, 만수고,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반디 논 생물살이 체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인천수목원 반디 논에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송덕여중 <빛과 소금>단 그리고 주요단체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 별로 떠나볼까요?

## 봄 “4월 16일 벌씨파종을 했어요.”

오늘은 벌씨를 파종하는 날입니다. 아침 10시에 반디 논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모였지요. 먼저 미리 소독해 놓은 벌씨를 모판에 파종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우선 모판에 1차로 흙을 담아주고 씨앗을 한 칸에 세 알씩 넣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체험에 신났네요. ‘혹시라도 한 칸에 한 개라도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걱정되었는지 “하나둘 셋, 하나둘 셋.” 비닐하우스 안에는 낱알 세는 소리가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씨앗을 다 채운 후에는 흙으로 다시 덮어준 다음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판들을 묘상에 올려놓았지요. 이제 인천대공원사업소 측에서 한 달 정도 이곳에 매일 물을 주며 관리하여 싹을 틔워 모로 키워줄 것입니다.

## 여름 “5월 21일 모내기를 해요.”

와! 한 달 전 파종한 벌씨가 싹을 틔워 너무 예쁘게 자랐네요. 오늘은 모내기하는 날입니다. 모내기를 위해 반디

논에 모인 사람들은 두 학교 또는 두 단체가 한 조를 이루어 모내기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우리의 전통방식인 손 모내기요. 먼저 모의 뿌리가 물 위로 다시 떠오르지 않게 꼼꼼히 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대부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물속 거머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신고 모를 심기 위해 못줄을 따라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려는 순간. “으악!” 미리 겁먹은 사람들이 거머리가 달라붙지도 않았는데 소리부터 지르네요. 하지만 어찌 된 일일까요? 모내기가 시작되자 거머리 때문에 물속에 발 담그기를 꺼리던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아예 물에 주저앉아 모내기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친구 얼굴에 그림까지 그리며 즐겁게 모내기했어요.



## 첫 번째 가을 “9월 24일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오늘은 허수아비를 만든다기에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반디 논으로 향했지요.

“와! 대박! 벼 좀 봐!” 잘 익어가는 노란 벼들을 보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벼대는 주춧돌에서 준비해준대서 단체별로 꾸밀 재료들만 가방에 한가득 담아왔어요. 껌매고 붙이고 싹우고 입히고 자신들이 만드는 허수아비를 보며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짜잔! 재간동이 허수아비, 장금 허수아비, 닥터스 허수아비, 산타 허수아비 등등. 한껏 솜씨를 발휘해 만든 허수아비들이 하나둘, 노란 벼들을 지키기 위해 논으로 옮겨졌습니다.

## 두 번째 가을 “10월 22일 반디 논에 풍년이 왔어요.”

고대하던 벼 베는 날입니다. 누렇게 잘 익은 벼들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대가 컸던 만큼 조심해야 할 일도 많아요. 벼를 낫으로 직접 베기 때문이지요. 먼저 장수천 네트워크의 담당자로부터 30분 정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논에 낫 열 자루씩 나누어 주고 담당 선생님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벼 베는 방법도 배웠지요. 벼를 한 묶음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벼들이 논 바닥에 누어 휴식을 취하네요.

휴식도 잠시, 벼단들은 다시 탈곡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벼를 탈곡하기 위한 탈곡기와 훌태, 찌꺼기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선별하기 위한 풍구와 키가 기다리고 있었요.

이 또한 안전하지는 않았답니다. 벼를 한 줄 가져다 탈곡기에 대거나 훌태로 훌태하니 벼 알맹이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먼지가 만만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고 숨을 참으며 열심히 도전해봅니다. 여자아이들은 좀 안전한 풍구와 키 체험을 주로 많이 하네요. 그래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수확한 벼로 떡을 만들어 점심시간에 나누어 먹었는데 한마디로 꿀맛입니다. 참여자 모두에게는 쌀 1kg씩을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겨울 동안 새들의 먹이로 논에 뿌려준다고 하네요. 쌀을 선물로 받은 참여자들은 한 해 동안의 결실에 뿌듯함과 행복감으로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반디 논은, 직접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풍요의 장이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이었습니다.







## “ 선생님이 수상하다!

학부모기자 이경옥

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

수업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삼삼오오 운동장으로 내려온다.

발로 땅에 선을 긋고, 가위, 바위, 보를 하더니 어느새 두 팀으로 나뉜다.

술래는 선위에 비석을 세우고 아이는 발등에 비석을 올리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다.

드디어 술래가 세워놓은 비석 앞이다.

잠시 멈췄하던 아이는 발등에 힘을 주어 비석을 던진다.

앗! 빗나갔다.

아쉬운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지만 어쩔 수 없는 듯 술래가 된다.

하하호호! 깔깔깔!

아이들은 제각각 자기들 마음대로 비석놀이를 한다.



비석놀이가 지루한 듯 몇몇 아이들은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땅에 그림을 그리며 재잘재잘 이야기한다.

선생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이어간다.

수업이 끝나는 시각, 인근 서흥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마을교사가 수업을 시작한다.

오늘은 전래놀이와 요리수업이 있는 날, 먹거리의 중요성도 배우고 직접 만들고, 놀며 삶을 배워가는 아이들.

“늘 어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다가 내가 직접 재료를 만지고 만들어 보니깐 더 맛있어요.”

“아이가 야채를, 그 중에서도 당근을 싫어했었는데, 요리 수업을 하고나서부터 조금씩 먹더라고요. 잘게 썰어서 넣어보기도 하고, 갈아서 줄때도 먹지 않더니 참 신기해요.”

김기희 서흥초등학교 학부모

창영초등학교와 서흥초등학교에서 전래놀이와 방과 후 요리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동구마을학교추진협의회에서 파견한 마을교사이다. 서울, 경기지역 마을학교가 교육청이 또는 지자체 중심이 된 것과 달리 동구마을학교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시설을 무상으로 내놓고 아이들을 돌 보겠다고 먼저 나섰다.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배움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인천 동구 시민단체들이 하나 돼 탄생한 마을 교육 공동체 '동구마을학교추진협의회'를 이끌어낸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손보경** 공동대표(47 · 사진)의 소망이다.

그는 학교 울타리 안의 교육과정에서 마을 배움 공동체로 확장하려면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2014년 11월 골목도서관(손보경 공동대표는 골목도서관장이기도 하다.)이 이전할 건물에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복지센터 우리동네,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전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중동구지부), 학부모공부모임 마더멘터리등 등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함께 했다.

2015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강사란 무엇인가? >, <마을교육공동체는 무엇인가?>와 같이 철학적 개념정리와 역할을 교육하였고, <주민이 만드는 마을교육>을 통해 마을강사 발굴했다. 이처럼 교육공간에서 아이들 및 성인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2016년에는 한걸음 나아가 관내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학교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을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전래놀이와 방과 후 요리교실이다.

손보경 공동 대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한 과정에는 무엇보다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며 “마을의 다양한 활동과 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것을 꿈꿨다. 그러기에 시민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가꿔온 시민단체와 동아리 등이 함께 협력한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동반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목표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었다. 2017년은 모두 참여하기, 2018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는 단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을학교에서는 학생도 동네 아이들, 선생님도 같은 동네 주민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소통과 협력을 하며 함께 활동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학교와 마을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각각 주체적으로 활동 방식과 내용을 계획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협의 내용을 기록해 공유하는 것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학교 혁신이 화두가 되는 요즘, 마을교육공동체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 “우리 아이들에게 옆을 볼 자유를 - 꿈틀리 인생학교

학부모기자 나가오유키, 유수연

### 한국형 애프터스쿨레, 꿈틀리 인생학교

대표적인 교육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에는 ‘애프터스쿨레’라는 특별한 학교가 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1년 동안 청소년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음 단계를 탐색해보는 과정이다.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1년의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어떨까?

인천 강화에 가면 한국형 애프터스쿨레를 만나볼 수 있다. 올 3월, 첫 번째 입학생을 맞이한 꿈틀리 인생학교가 그것이다. 흥성 풀무고등학교의 교장을 지낸 정승관 교장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입시경쟁에 찌든 아이들에게 옆을 볼 자유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꿈틀리 인생학교.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30명과 덴마크에서 유학온 청소년 1명, 총 31명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며 옆을 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약 300여 개의 애프터스쿨레가 지역마다 마련되어 있고, 그 과정은 모두 정규과정 안에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서울에 개교한 ‘오디세이학교’ 말고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애프터스쿨레형 학교가 없다. 오디세이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대신하는 과정이라 끝나면 바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입시를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있다.

꿈틀리 학교는 교육과정 밖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말 그대로 1년을 ‘일반 학교 과정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정규교육이 아니다보니 한 달에 약 80만원(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포함) 가량의 부담도 있다.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꿈틀리 인생학교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 꿈틀리 학교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생활의 모든 규칙은 아이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 아이들에게 옆을 볼 자유를 주자

꿈틀리의 정승관 교장은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넘치도록 많은걸 배웁니다. 그런데 막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주기로 결정하고 입학 후 한 달은 정말 정신없었지요. 하지만 서로 의논해서 규칙을 만들고 공부할 거리를 정하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고 있을 뿐이지요.”라며 아이들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 청소는 당연히 학생들의 몫이다.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도 한다.



커리큘럼은 농사, 글쓰기, 과학, 영어, 음악 등 다양하다. 농사는 모든 것의 기본이기에 필수 과목. 글쓰기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함께 한다. 과학과 영어 등 일반 교과목은 입시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며 배우는 생활밀착형 공부이다. 아이들이 원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프로젝트 수업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릴 적 내가 살던 집을 만드는 아이, 학교 부근에 가게가 없다며 매점을 만든 아이, 사진을 엮어 책을 만드는 아이, 작곡을 하는 아이 등 영풍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아이들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번 11월에는 아이들이 기획한 여행 프로젝트 ‘이동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꿈틀리 인생학교를 알게 되었다는 권용우 학생은 “박원순 시장님을 만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노동문제, 노동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니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에요.”라며 꿈틀리에서의 1년을 평가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꿈틀리에 온 곽서연 학생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농사일도 해봤어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걱정하시지만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꿈틀리 생활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정승관 교장은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만 보면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모였어요. 일반 교실에서라면 1등과 꼴등 아이들이 느끼는 존재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나와 타인의 장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 서로 나누고 존중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당당히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일반 교육 과정이 끊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영어, 수학 등 기초 입시 과목 수업은 없을까? 없다.  
정승관 교장은 “1년 동안 입시형 영어·수학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틀리 인생학교 수업의 목적은 ‘아이들 스스로 정말 필요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라며 공부의 본질을 강조했다.

#### 사람의 본성을 찾는 교육, 꿈틀리 인생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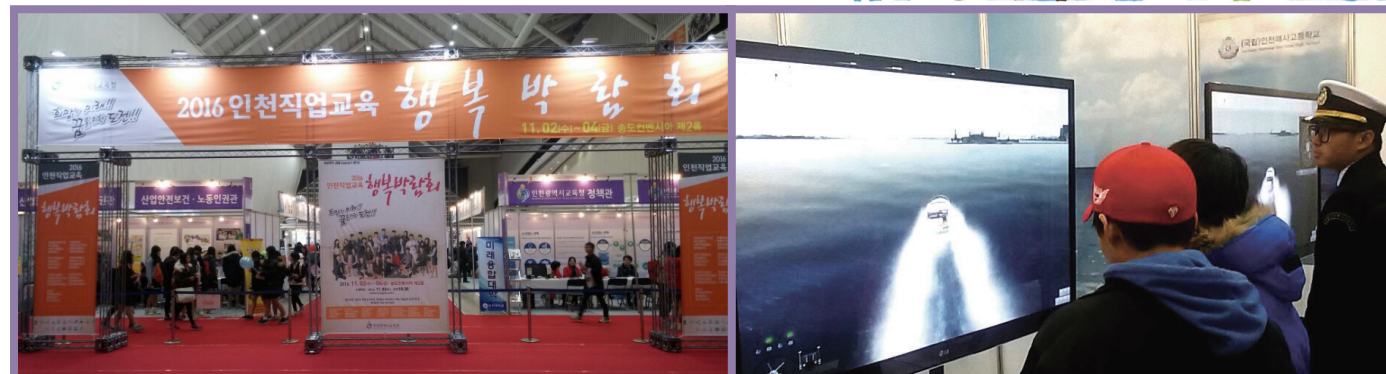
지난 11월 19일, 꿈틀리 인생학교의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에는 설명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옆을 볼 자유, 내 꿈을 찾을 자유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부모들이 꿈틀리를 찾은 것이다. 이러한 관심에 대해 교직원들은 공교육에 대한 실망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꿈틀리의 시작을 함께 한 31명의 아이들은 내년 2월, 졸업과 함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꿈틀리를 벗어나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정승관 교장은 이렇게 답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 만큼 몸도 마음도 성장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게 당당해졌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생활은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런 학교가 늘어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경험과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행복박람회를 찾다

학부모기자 서민경, 이미교, 이상연, 이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 제2홀에서 2016 인천직업교육 행복박람회(Happy Job Concert 2016)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천 관내 28개 특성화고, 마이스트고가 참가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전시와 시연, 상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학교 전공과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정책관에서는 직업교육정책과 병역특례제도, 일학습 병행제 등을 안내하고 산업안전보건, 노동인권관 부스도 운영되었으며 상담관에서는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안내와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전시와 시연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문학정보고의 창업아이템 제작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팬스우드디자인 시연, 인천해양학교의 개인 소형 수조 장식 시연, 영화관광경영고의 관광레저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카지노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한 블랙잭 게임 테이블 시연, 정석항공고의 플라이트 시뮬레이션(모의비행조종)과 소형 무인항공기 비행시연, 초소형 항공기 제작 체험, 인천뷰티예술고의 네일아트, 바리스타 체험, 도화기계공고의 저격수 시연회를 통한 군 특성화고를 간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로봇제와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원격제어 시연, 중앙여성에서는 회계이론을 야구에 접목한 시연프로그램을 진행, 인평자동차정보고의 자율주행자동차 모형조립과 주행프로그램 코딩 체험, 인천정보산업고의 2족 및 6족 로봇제어 시연, 인천 여상의 내 얼굴 들어간 화폐 만들기, 인천세무고의 세금 관련 퀴즈 골든벨, 인천생활과학고는 염색시연 및 체험을 진행하였다. 주얼리고는 보석 감정과 장신구 제작체험 등의 부스를 선보였다. 학교마다 특색을 담은 시연 부스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며 호응도를 끌어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여러 중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활동으로 많이 참여하였으며,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상담을 통해 각 학교마다 특색과 진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는 “이런 박람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인천에 이렇게 많은 특성화 학교가 있는지 몰랐다. 시간 내 와보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막연히 인문계로 진학해서 입시를 준비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모든 아이가 공부로 승부를 걸기보다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 진학한다면 취업뿐 아니라 대학진학 또한 가능하니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다 싶다.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주말에도 방문 소감을 전했다.

상업 계열과 공업 계열 뷰티, 보건, 제과 등 많은 학과가 미래의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 인천 특성화고가 발전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일자리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 박인숙 공동대표 인터뷰

학부모기자단 이희영, 이혜연, 고지혜



을 하반기 인천 교육계 최대 이슈는 ‘2017학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행’이다. 당초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거라는 관계자들의 예상을 깬 놀라운 결과다. 이런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숨은 공로자가 있다.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 박인숙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커피 향 그윽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실행된다. 소감이 어떤가?**

정말 기쁘다. 예상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이 놀랍다. 사실 난공 불락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청연 교육감이 올린 무상 급식안이 시의회에서 3차례 부결되고, 유정복 시장도 소극적인 모습이어서 비관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인천만 무상급식이 안되는 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끈질기게 노력한 덕에 문제가 해결된 거 같다.

**학교 급식 시민모임이 급식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 어떤 노력이 있었나?**

2003년 인천 학교 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저질급식 문제가 심각했다.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농민들의 어려움도 컸다.

전남, 나주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주민발의 조례운동이 시작돼 2004년 4월, 인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조례가 제정됐다. 쌀, 한우, 달걀, 장류 등이 해당되는데 16개 광역 220개 기초단체 조례가 이때 만들어졌다. 이후에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계속해왔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 서명운동, 단식, 촛불 집회, 캠페인은 물론이고, 시청과 교육청, 시민들이 함께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급식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무상급식을 하면 혹시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진 편견이라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세금으로 물가인상분을 예상해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유상급식을 하는 곳에서 식중독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다. 공공재원을 통한 공적인 급식조달시스템이 오히려 투명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고 본다.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조달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해 달라.**

현재 학교급식은 eaT(전자조달시스템), 개별 학교별로 입찰을 통해 재료를 납품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자방식으로 입찰하다보니 유령업체가 생기기도 하도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책변화를 통한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한다. 같은 예산으로도 지역별로 공동구매를 하면 질 좋은 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를 만들어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검수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영양교사의 경우, 급식재료조달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식단과 조리과정을 연구 할 수 있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급식 관련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 GMO 상용화 비율이 세계 1위다.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등이 주 재료인데 성장기 아이들과 여성들에게겐 치명적이다. 현재 원재료 GMO를 가공해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GMO표시를 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GMO완전 표시제를 위한 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친환경 우수식재료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이 절실하다. 인식이 부족하거나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차액을 시에서 지원해 줘도 불구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쓰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가공품 11개를 지정해 좋은 식재료로 품질을 향상시키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안다. 교육청 차원의 새롭고 적극적인 교육이 자주 있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급식의 맛과 질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많다. 조미료를 쓰지 않은 급식이 좋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다.

‘맛’이란 바뀔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엄마가 만든 밥을 맛있다고 하나? 맛없다고 한다.

아이들의 오감을 회복시켜야한다. 감각적인 맛이 전부가 아니다. 첨가물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급식이 정착되기 위해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59.4%로 교육청 부담비율이 높다. 무상급식 지원하느라 학교현장의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개선책이 있다면?

사실 인천 교육 재정 부담의 주범은 누리과정이다.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크다.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육재정부담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학교급식법개정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5%, 지자체 25% 부담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30년간 여성, 교육, 복지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젊을 때는 법, 제도, 정치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컸다. 거시적인 것, 세상을 바꾸는 것.

지금은 땅을 만지는 정서를 갖게 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있다.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감사, 수고, 과정의 중요함을 느끼면서 ‘길게 사는 삶’을 생각하게 됐다.

‘지속적이면서 함께 나누는 청초한 삶’을 살고 싶다. 꾸준히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을 즐겁게 살고 싶다.



**학교 급식 사진이 매일 공개됩니다.**

- 학교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 우리 아이가 오늘 먹은 급식을 볼 수 있어요.
-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 학교 급식은 식재료 방사능 검사, 학교급식시설(칼, 도마, 식판, 행주 등)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 결과는 ‘학교급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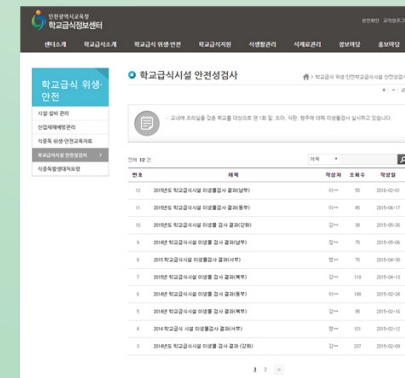


**학교 급식 점검에 함께 해주세요.**

- 학교급식점검단,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식재료를 미리 검사하고 조리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급식을 직접 먹어보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어플 화면



학교급식정보센터 ice.go.kr/main.do?s=icefood



학교급식점검단





다른 학교에선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기 위해 인천시의 청소년들이 기자로 변신했다. 무감독 시범 제도부터 사랑으로 세운 베트남 희망학교 소식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1학년의 첫 진로직업체험, 조선일보를 가다

가좌고등학교 1학년 최찬미

●가좌고등학교 1,2학년 총 18명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험난한 지하철을 거쳐 모였다.

1시까지 조선일보 미

술관 앞에서 집합을 하고, 바로 점심시간이라 배고팠는데 마침 미술관 옆 TV조선 건물 지하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해주대서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점심식사 후 미술관 관람을 시작했다. 이 곳은 실제 기자들이 일하는 곳이라 절대 떠돌아서는 안 되며 조용히 구경만 하다 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신문이 발행되는 커다란 기계인 '윤전기'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로는 신문 기자들이 일하는 편집부로 갔다. 특이한 점은 시계가 정말 많고 컴퓨터도 많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기자는 마감시간이 생명이라 시계를 자주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송 기자들이 일하는 보도국으로 갔는데 편집부와는 분위기가 새삼 달랐다.

조용하면서도 분주해 보였고, 무엇보다 TV가 정말 많았다. TV를 여섯 개씩 모아놓고 다른 방송사들의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아마도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에서의 관람이 끝나고, 버스로 조선일보 뉴지엄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는 실제로 취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신문을 작성해 내가 만든 신문을 발행하는 체험을 하는 곳이었다. 취재는 조선일보 역사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신문은 2인 1조로 나누어 작성했다. 신문 작성이 끝나고, 신문이 발행되는 동안 바로 옆 방송체험실로 가서 제비뽑기로 역할을 뽑아 실제로 앵커, 기상캐스터, 해외특파원, 취재기자 등 역할을 정해 체험을 했다.

나는 기상캐스터를 맡았는데, 정말 편집기술과 세트장이 생생해서 꼭 방송국에 온 것 같았다. 이렇게 모든 체험활동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수료증과 신문을 받고 뉴지엄을 떠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지쳤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 참 행운이라고 느꼈다.

●방송인 김제동(43)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전격 하차를 결정하였다.

미운우리새끼는 지난 8월 처음 방송되기 시작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미혼 남성 김제동, 김건모, 박수홍 등의 모친이 화자가 되어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내용인데, 출연자들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 금요일의 재미를 책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김제동의 존재이다. 김제동은 예능계의 대표적인 노총각이자 입담꾼으로 불려 어느 행사든 사회를 맡기고 싶은 MC 1순위로 뽑히는 인물이다.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재치 있는 입담과 수많은 진행 경험으로 행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그의 능력은 이미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던 그가 돌연 촬영을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미운우리새끼'에서 돌연 하차를 결정하였다.

SBS측은 "스케줄이 많아 녹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잠정 하차"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제동이 스케줄로 인한 하차가 아닌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하차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최근 그가 현 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공개 피력하면서 여러 차례 강연을 다니는 모습을 보여 보복성 하차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말로 살아가는 김제동이 말 할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것은 지난 6년 간 총 7회(하차 3회, 폐지 2회, 정규편성 무산 2회)였다. 김제동의 하차 인생은 2009년 5월故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노제 사회를 맡으면서 시작했다. 실제로 그는 한 국정원 직원이 VIP가 걱정한다며 "사회를 말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제를 진행하였고 이후 스타골든벨, 환상의 짝궁, 나는 가수다, 힐링캠프 등 진행을 맡았던 인기 프로그램에서 돌연 하차되거나 방송이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 하차·폐지의 공통점은 김제동의 바쁜 스케줄도, 건강상의 이유도, 프로그램의 부진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는 국민으로서 말할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사드 배치에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성주 군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이처럼 김제동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많은 사람

## “방송인 김제동

광성고등학교 2학년 이강민

들 앞에서 자신 있게 표현했다. 하지만 이는 곧 프로그램의 하차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고 결국 '미운우리새끼'마저 하차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의 발언이 또는 생각이 자유로운 국가이고 그 사람이 공인 이든, 평범한 국민이든 누구에게도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이것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한 무조건적인 힐난이나, 소위 말하는 '종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고 앞서서부터 강조한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방송인 김제동은 무조건적인 힐난을 가한 적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찬양한 적도 없다. 실제로 그의 강연이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소신과 의견을 방송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많은 이들 앞에서 내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를 겨냥해 소위 '윗선'에서 김제동의 하차를 요구하는 외압을 가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주의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방송·언론계는 여전히 권력의 힘에 놀아날 것이고 이는 곧 패망의 지름길을 야기할 것이다.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 된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부채를 지는 것이다.

그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국가 지키러 간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들을(세월호 희생자) 따라다니느냐." 이 말에 그는 "아이들이 국가다 이 XXX들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형식적인 말만 내뱉으며 권위적인 모습으로 유족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김제동의 방송 하차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연 방송 하나(TBC-톡투유)를 출연하고 있는 김제동의 바쁜 스케줄이 하차의 이유인지,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이 하차의 이유인지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 “소비심리학, 인터넷이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논현고등학교 1학년 조수빈

●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로 젊은 세대는 조그만 PC공간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인터넷서핑을 즐긴다. 이에 뒤질세라 중장년층도 TV 오락프로그램 속 난무하는 자막편 집에 익숙해지고, 듣기만 하던 라디오방송에서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등 정보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간다. 가히 인터넷으로 구현되는 유토피아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여금 단순하게 사고하도록 길들여지는 듯하다. 인터넷 피아(Internepia)에 사는 현대인은 똑똑한 듯, 하지만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이용자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불문하고 매년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인터넷 이용률은 84.1%로 독일(84.1%), 프랑스(83.0%), 호주(82.4%), 미국(81.0%), 일본(79.1%)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았다. 인터넷의 활용성이나 파급효과 측면을 볼 때, 인터넷은 우릴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서핑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현재를 살아가는 소비자는 더 스마트해졌다.

인터넷이 스마트한 소비자로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가 30~40대의 쇼루밍(showrooming)족의 출현이다. 오프라인매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습득은 물론 각종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온라인 구매를 주로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은 단지 쇼룸(showroom)에 불과하다. 이젠 인터넷쇼핑몰은 백화점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매장도 인터넷쇼핑몰을 중요한 유통채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IT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인터넷이 우리들의 사고를 ‘알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008년 애틀랜틱(Atlantic)지에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Is Google Making Us Stupid?)’라는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검색엔진을 통한 인터넷서핑은 우리의 지식과 문화를 즉흥적이고 주관적이며,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깊이를

잃어버린 지식을 양산해낸다.” 이후 이는 ‘구글 효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치매증후군’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성에 대한 흑독한 대가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편리성에 빠지고 결국은 정보에 대한 일시적 기억상실을 겪게 된다는 증후군이다.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자동으로 입력해 두고, 발신자 이름이 착신과 함께 뜨게 함으로써 애써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정말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뇌가 손상을 입게 되는 치매와는 달리 일시적인 기억장애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인터넷 헤비유저인 20대부터 지속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위험성을 깨달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 인터넷은 정보 확장성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정보 집중성은 저해하기에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보로 저락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몫인 것이다. ‘아는 것’과 ‘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 “OECD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교육

인천고등학교 1학년 전동환



●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OECD에 대해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정부나 사회는 각 나라의 삶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고자 할 때 바로 이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로 수치를 비교하곤 한다. 그래서 이번엔 이 OECD통계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Spending on tertiary education

#### 중등 교육 이후의 교육비 지출

Tertiary education(제 3차교육;중등학교에 이어지는 대학 및 직업 교육 과정)에 드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뒤를 일본과 미국이 뒤따랐다. 여기서 제3차교육은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과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Adult education level-성인의 교육 이수율

Adult education level 부문에서는 캐나다가 1등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스라엘과 일본이 뒤따랐다.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했으며, OECD평균 수치보다 10.3p 높은 수치로 성인들의 교육 이수율은 상위권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번의 주제인 Spending on tertiary education의 결과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Mathematics performance (PISA)-수학 능력 성취 수준

Mathematics performance 지표는 다들 한번쯤 접해본 지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던 자료 중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을 제치고 가볍게 1위에 올라섰다. OECD 평균수치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수학 수준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이 대한민국을 바로 뒤따랐고,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따랐다.

### 4. Reading performance (PISA)-언어 능력 성취 수준

수학에서 1등을 차지한 대한민국이 언어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왔던 1등 자리를 일본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양상을 보여 대한민국 학생들의 언어 능력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뒤를 대한민국이 뒤따랐으며, 잇달아 아일랜드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Mathematics performance 와 Reading performance 두 분야 모두에서 하위권을 웃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Private spending on education-사교육비 지출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언어, 수학 성취 수준이 높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인가. 사교육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사교육비 지출 부문에서는 **영국과 칠레를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학업 성취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던 일본은 예상 외로 사교육비 지출이 16위로 중위권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였다. 언어, 수학 성취 수준은 비슷하지만 사교육비 지출 부문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6. Public spending on education-공교육비 지출

그렇다면 공교육비 지출 부문에서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사교육비 지출 부문에서의 순위에서 살짝 떨어진 **8위**를 차지하였다. 1위는 사교육비 지출부문에서 중하위권을 맴돌았던 멕시코가 차지하였고, 그 뒤를 뉴질랜드와 스위스, 칠레 등이 뒤따랐다.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의 공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저번 순위보다 더욱 하락한 25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교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투자하는 비용이 낮음을 알 수 있지만, 학업 성취 수준은 우리나라와 대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조사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의 교육 수혜자 비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성인의 교육 이수율에 고스란히 나타났고, 제 3차 교육에 드는 비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런 높은 학구열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언어, 수학 성취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높은 사교육비 지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학업 성취 수준과 보편적인 교육제도의 확립만이 교육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듯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과열한 입시경쟁으로 본래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가치를 자신의 성적으로만 여기는 과도한 학벌주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행복과 꿈, 소소한 즐거움조차 보기 힘든 대한민국을 교육 선진국이라 부르기에는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 “만수고 학생들을 위한 후문

만수고 2학년 김민호

● 8월 29일 인천 만수고(교장 이해경)는 후문 준공식을 실시하였다. 후문 준공식은 우리학교 내 1층에 위치한 시청각실에서 진행되었다. 국회의원, 구청장, 학부

모회장등 후문을 준공하는데에 큰 도움을 주신 내빈들이 참석했고, 학생임원과 학교선생님들도 후문준공식에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우리 만수고등학교의 자랑, 풍물 동아리 ‘다스름’의 풍물공연으로 준공식에 시작을 알렸다. 교무부장 선생님의 내빈소개가 있은 후, 교장 선생님은 내빈, 학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셨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그동안 우리학교의 큰 숙제였던 등·하교 문제를 후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다. 그 후, 구청장, 국회의원등 여러 내빈들이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시면서, 1차 행사는 막을 내렸다. 시청각실에서 행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후문준공을 알리기 위한 테이프커팅식이 진행되었다. 학생회장 이한진(18)군에게 후문 완공에 대한 소감을 묻자 “단순히 후문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하철 2호선을 통한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통학권이 확대되고 자전거 등교 또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해주었다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호평했다.

만수고의 후문은 안전하고 빠른 등굣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등·하교 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길마저 좁고 차들이 많이 다녀 위험했다. 또, 인천 2호선의 개통으로 지하철 등교생들이 생겨났지만 이 학생들은 돌아서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생긴 후문을 통해 이 학생들은 훨씬 빠르게 등교가 가능해졌다. 장수동, 주공아파트 거주 학생들 또한 빠르고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어 학생들이 만족하는 후문이 될 전망이다.

## “인천국제고 IIHS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국제고 2학년 장유정, 윤세빈

● 지난 9월 8일, 인천국제고등학교 야외공연장(클로세움)에서 진행된 '제4회 인천국제고 IIHS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6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갈채 속에서 성료했다. 인천국제고 IIHS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교내 문예제 동아리 오케스트라가 2013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

을 통해 빼어난 일상생활 속 잠깐의 여유를 찾아주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교내 오케스트라는 32명, 9개의 파트(플룻, 클라리넷, 타악기,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미제라블과 아리랑을 연주할 때는 보다 풍성한 소리를 위해 오보에, 바순, 호른, 튜바, 트럼본, 코넷 등의 객원을 활용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케스트라는 지난 2달여 간 점심 저녁 시간과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전부 투자했다. 학생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보다 나은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 단원들은 연습에 성실히 임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부임하신 인천국제고등학교 박기화 음악 선생님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앙코르 곡까지 총 10곡을 연주하였다. 처음으로 <레미제라블 모음곡>과 <미녀와 야수 메들리>를 연주하였는데, 영화 장면을 영상으로 함께 보여줌으로써 청중들은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이신 유병엽 연주자께서 찬조 공연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반주에 맞춰 트럼펫으로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연주하였다. 그 후 <My way>, 영화 음악 피오바니의 OST인 <Life is Beautiful>가 연주되었고,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신 소프라노 하수연 씨께서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하소서'>, <넬라판타지>를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셨다. 이번 연주회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최성환의 <아리랑>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곡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인 <Love Theme from Cinema Paradiso>였으며 앙코르를 마친 후 연주회는 막을 내렸다. 비록 호우로 인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큰 실수 없이 준비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케스트라 악장 임예은 양은 '어떤 위안을 들어도 아쉽다'며 '내년에 3학년이 되지만 그래도 무대에 한 번 더 서고 싶다'고 하였고, 플루트 황승아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더 눈물이 난다.”며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탐험활동 실시

국제고등학교 2학년 장유정

인 탐험활동을 실시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학생들이 활동영역과 목표를 직접 정하고 정해진 평가과정을 통해 동장, 은장, 금장의 포상을 주는 시스템으로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가치 있는 활동을

●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1명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중 하나

스스로 정하고, 계획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도와준다. 이번 탐험활동은 공간 및 장소 이동이 많고 신체적 활동이 중점이 되는 모험활동으로 여행을 통해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탐구심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활동 계획 및 준비, 경로확인, 안전 및 응급처치, 캠프기술, 음식준비와 조리 등 아홉 가지 항목의 기본교육 수료 후, 참여 학생들은 5~7명이 한 조가 되어 캠프장에서 텐트를 치고, 스스로 식단을 짜 요리를 했으며 용평면 물안골, 봉평면 이효석100리길, 대관령 선자령을 탐방했다. 학생들은 가파르고 복잡한 산길을 조원들이 모두 협동해서 찾아감으로서 협동심을 기르고, 장시간 등산을 통해 인내심을 길렀다. 특히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효석 100리길 (15.6km)을 완주함으로써 체력을 기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탐험활동에 참가한 김혜진 학생은 “정말 힘든 코스였지만 해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고, 장다연 학생은 “탐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좋다.”고 말했다.

## “꿈과 행복이 가득한 영종중학교와 자유학기제

하늘고등학교 1학년 황유진

● 행복학교와 미래 학교로 선정된 이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교 등 다양한 상을 받으며 대한민국 행복학교로 거듭난 학교가 있습니다. 행복학교, 영종중학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종중학교는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온 자유학기제 대표 학교입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교의 우수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낱알이 소개하고자 자유학기제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영종중학교의 염인식 교감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유학기제는 무엇입니까?

A.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 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로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Q. 자유학기제의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A.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23위라고 합니다. 암기식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진로 탐색 및 고민의 계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Q. 인천의 자유학기제와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A.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은 더 행복하게 (Happy today, happier tomorrow)', 'Find me, Find dream, Find future'를 목표로 행복한 인천 교육을 목표로, 진로 교육강화, 교육 과정의 다양화, 학생 부담 해소,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영종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기본 교과를 20시간으로 편성해 다양한 진로활동의 시간을 늘려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진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Q. 달라진 교실과 그 사례가 있습니까?

A. 사례로는 먼저 수학 스토리텔링, 영어 역할극 발표 수업, 시나리오 쓰기 등의 학생 참여활동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람회, 멘토와 멘티제, 체험 발표 등의 교과 특성에 따른 체험 수업이 있고,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수업, 사고를 공유하는 협력 수업,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토론 수업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융합 수업 등이 있습니다.

Q. 영종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평가방법과 교과별 과정 중심 평가 사례는 무엇입니까?

A. 과학 과목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도덕 과목은 주제별 UCC와 통일 신문 만들기 등의 창작 과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술가정 과목에서는 DIY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구 만들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필 시험을 대신한 다양한 평가 속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학업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영종중학교의 진로 동아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 NIE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융합한 기자들', 바둑 게임을 하는 '바둑 프로 기사반', 나무와 목선반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키우는 '우드펜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이 우드펜 동아리는 작년에 여수에서 열린 행복학교 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Q. 영종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A.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진로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 관심도, 학업 참여도 모두 높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오는 2학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인 답변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염인식 교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최상의 교육과정으로 평가되어온 영종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http://www.ggoomggi.go.kr/>





연수여고 다들아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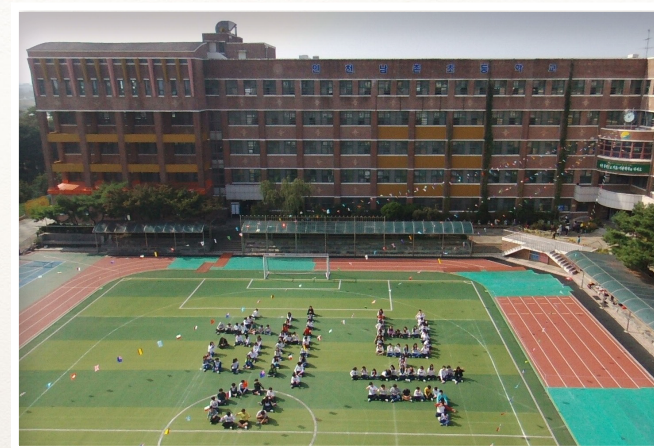
한오름학교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오직 ONE



주안북초 배움은 함께하는 삶이다



서흥초 스승의 날 허그데이



남촌초 우리의 꿈은 행복

## 인천교육의 행복한 순간을 소개합니다 인천교육 사진공모전



창영초 새봄이여 내게로 오라

지난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사진공모전>에 인천교육의 재미있는 현장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통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우리 반, 즐거움 배움과 나눔이 가득한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본다.



강화여중 밤샘독서캠프



강남미디어영상고 레드 액션



삼성초 맛나식당에 많이 찾아주세요



석남중 파란꿈을 가진 이들



은봉초 알파벳 댄스



가정초 엄마와 중간놀이



# 자유학기제, 교사도 학생도 바꾸는 수업 혁신

주간경향 기자 **박은하**

“2+3=5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물었다. 그는 요즘은 ‘놀이학습’을 활용한다고 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를 모두 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는다. 다 같이 신나게 춤추는 가운데 교사가 “3”이라고 외치면 세 명이서 그룹을 지어야 한다. 교사는 이어 “5”라고 외친다. 좀 더 머리회전이 빠른 학생이 재빨리 두 명을 데려와서 다섯 명의 그룹을 만든다. 반복하면 그 반의 모두가 2+3=5라는 원리를 알게 된다. 신나게 운동했으니 즐거움은 덤이다. 문제풀이를 계속 한다면 이 반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면 놀이학습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의 원리를 익혔겠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친구들과 신나게 논 경험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물론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계산도 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부터 해야 수업을 받아들여요.”

초등학교 때 즐겁게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 상당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불행해진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다. 중상위권은 현행 입시체제에서 본격적으로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몸은 어린이인데 학습량과 수업방식은 갑작스럽게 고등학교처럼 변한다.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한다. 교실이 변한다. 상위 20%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하위 20%는 어차피 성적이 오르지 않고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중간층 학생들은 시험으로 몰아붙이면 공부를 한다. 하지만 시험이란 반드시 누군가를 포기하는 과정이고, 포기를 반복한 학생들은 ‘희망’ 대신 ‘내상’을 입는다. 건질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년이 오를수록 줄어든다.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교사는 한 반에 5명 정도 건지기 위해 학생들을 줄 세울 수 있는 객관식 혹은 단답형 시험문제 출제

에 골몰해야 한다. 내 아이가 5명 안에 든다는 보장이 있을까. 든다고 하더라도 행복할까.

한국 교육이 이대로라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계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 준비한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3년 간 시범실시를 거친 자유학기제이다. 2016년 2학기 전국 중학교 98%가 자유학기제를 실시 중이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는 학기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한다며 어디론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대로 관찮은 걸까. 모두가 자유학기 상태라고는 하지만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다. 결국 철모르는 내 아이만 자유학기의 노는 분위기에 휘말려 뒤처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체험학습을 간다고 내는 이런저런 비용까지 고려하면 학부모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을 단순히 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시키되, 다른 방식으로 시키는 것이다. 핵심은 수업 혁신이다. 수학시간에 부추전을 부치면서 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시간에 해외여행 가이드가 돼 보면서 세계 지리를 익힌다. 지필고사가 없으니 시험범위가 없고, 시험범위가 없으니 진도가 없다. 진도에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도 없다. 자유학기 기간의 성취는 고교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을 개발할 수 있다. 평가는 수업 중 참여, 과제, 각종 수시평가로 대체한다.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방식도 다르다. ‘국어 80점’이 아니라 “말하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읽기와 쓰기에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성취를 보입니다.”라고 적는다. 수업방식, 학생의 공부 방식, 평가 방식,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모든 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즐거워한다. 학교 가는 것,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유학기제의 모델은 아일랜드와 덴마크의 ‘전환학년제’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의 1~2년간 완전히 쉬어도 된다. 직업 체험을 하든, 부모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든, 다른 기술을 배우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국에서 1~2년 진학이 늦는 것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맥락을 고려해서 자유학기제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김성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렇게 정규 학기로 들어온 자유학기제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 마땅한 혁신적 수업을 설계하지 못해 학생들을 수박 겉핥기식 체험학습에 내몰리는 일도 시범기간 동안 왕왕 있었다. 그러나 시범과정을 거치면서 혁신의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수업 혁신 사례 공유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고교 입시체제가 존재하니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다시 강의와 지필고사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과 교사들은 낯은 수업에 만족할 수 없다. 체험, 관찰, 실험, 글쓰기. 자유학기제를 지렛대로 중학교 3학년 과정 전체를, 나아가 고교수업 과정과 대학입시를 변천시키려는 노력을 교육계가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수능에도 또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평가원의 부실함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고의 전문가들로 출제진을 꾸리는 데도 오류가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객관식의 종말’이다. 단순 지식을 요구하는 학력고사는 애저녁에 폐기됐다. 수능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요구하지만 ‘객관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에는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 암기력과 단순 계산능력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각광받을 것이라 한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변화무쌍한 시대 길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모처럼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 이론 제도적 실험이  
성취로 이어가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